

보도시점 2026. 5. 28.(목) 10:00
< 5. 28.(목) 석간 > 배포 2026. 5. 27.(수)

위기는 철저히 관리, 성장의 기회는 과감히 선점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산업·통상·자원 분야 주요성과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1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위기가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하였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미래 성장 기회는 과감히 선점해 나갔다. 확고한 국익 최우선 원칙에 기반한 끈질긴 협상 노력을 경주한 끝에 '25.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는 등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으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개편에 착수함으로써 산업체질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또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총력 대응, 즉시 대응 체제를 가동한 결과 현재까지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물경제 충격과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통상·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처음 7천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올해 4월까지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AI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을 넘어 미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 AI 대전환에 본격 착수하였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제로서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공정·제품·지역 전반에 걸쳐 AX를 신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 ① 한-미 관세협상 타결 】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 및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략산업의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25.4월 美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미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러 차례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30여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25.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하였다.

아울러,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하여 에너지,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한미 조선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한미간 경제·산업 협력과 신뢰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26.3)하고,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측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② 민관 협력을 통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

석유화학산업의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사업재편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 과거 위기 발생 이후 추진하던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위기상황 이전에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프로젝트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규제합리화 등 2.1조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였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도 지난 3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

화학특별법」 제정('25.12)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R&D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또다른 업종인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정('25.11)을 통해 저탄소·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한 토대를 조성하고, 기업 활력법 개정('26.3)을 통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③ 중동발 에너지·자원 위기 총력 대응으로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 】

중동 위기에 신속 대응하여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26.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직후 산업부는 신속하게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에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SWAP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 민관 위기 대응 시스템 아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3~4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5월 원유·나프타 도입물량을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하였다. 또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에서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석화사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5월 말 75%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며, 석화제품 원료를 보건의료·핵심산업·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필수품목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민생 방파제로서 최고가격제를 적기에 시행하여 물가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을 통해 매점 매석과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 위기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 ④ 수출 사상 최대 기록, 외투도 역대 최대 유치 】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을 통해 '25년 수출 7,093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져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40.9%)를 기록하며, 사상 첫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아울러, 아세안·중남미·CIS 수출비중 확대('24년 22.6%→'25년 23.6%) 등 신흥시장 다변화와 함께, 올해 1~4월 기준 뷰티(+24.1%), 패션(+13.7%), 푸드(+7.8%) 등 K-소비재 수출의 약진을 이끌어내며 우리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2.4조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상생 무역금융(수출공급망보증) 조성과 시중은행을 통한 15조원 규모 수출기업 우대금융 공급, 'K-수출스타 500' 출범 등을 통해 '모두의 수출'을 위한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5년 외국인투자 역시 360.5억 달러를 유치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와 첨단산업 핵심 소재 투자가 증가하여,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 ⑤ 제조AI 대전환(M.AX)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부는 우리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난 해 9월 1천여개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다. 업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기관은 출범 8개월여 만에 50% 증가한 1,500여 개로 확대되었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다양한 공정에서 AI를 활용해 작업시간 단축, 품질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X제품을 위한 기술과 핵심부품도 개발 중이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로봇 등 수요업계는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액추에이터, 로봇손과 같은 부품개발과 함께, 제조현장 실증투입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제조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AI전환을 위해 올해 2월 ‘산단AX 분과’를 신설, M.AX 확산을 위한 ‘베스트 일레븐’을 완성하였다. 산단AX 분과를 중심으로 10개 AX 실증산단과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기업의 신속한 AX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M.AX를 전국 제조현장으로 확산, 우리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한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 법안 19건 중 지난 1년간 17건을 발의하였으며, 이 중 6건은 제·개정을 완료하였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26.2)을 통해 K-반도체 초격차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다.

<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 법안 제·개정 성과 >

법안명	주요내용	국회 통과
반도체특별법 ^{제정}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체계 구축(대통령 소속 반도체위 설치, 입지·기반시설 구축 등)	26.1
산업융합촉진법	-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법령정비 의무 강화 등)	25.11
산업디지털전환법	- 산업SI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5.12
기업활력법	- 사업재편 인센티브 강화, 규제합리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강화 등	26.3
통상변화대응법	- 상대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	26.3
사용후배터리법 ^{제정}	- 사용후배터리 거래 및 이력관리 체계 구축, 재제조재사용 산업 촉진 등	26.4

산업부는 향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에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제조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먼저,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과정에서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산업 에너지 연료의 가치를 넘어 산업과 민생의 핵심 원료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둘째,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산업·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 착수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등 후속 조성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정·제품·지역 등 제조업 전반의 AX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가칭 ‘M.AX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조 AI 2030 전략」,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의 수립을 통해 제조AX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제조AX의 핵심인 제조 데이터를 본격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숙련공 은퇴에 따른 암묵지 단절을 예방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조 암묵지 AI 솔루션 개발, 지역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지식과 AI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1】 산업·통상·자원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별첨2】 산업통상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실적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손용하 (044-203-5520)
		담당자	사무관	이수연 (044-203-5521)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철영 (044-203-5530)
		담당자	사무관	조수연 (044-203-5565)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구진경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044-203-5658)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240)
		담당자	사무관	이재훈 (044-203-5241)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순목 (044-203-3830)
		담당자	서기관	허유석 (044-203-3831)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혁 (044-203-4930)
		담당자	서기관	하원석 (044-203-4909)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전기성 (044-203-4023)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김정예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김해원 (044-203-4086)

국민주권 정부 1주년 산업통상부 주요성과

주요성과1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국익 최우선 통상

한-미 관세 협상 타결

- 주력 수출품목(자동차, 의약품) 관세 부담 완화(15%)
- 반도체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조선, 에너지 등 전략산업 진출 기회 확대

- 한미 조선협력센터 설립 합의로 MASGA 본격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 「대미투자특별법」 제정('26.3.17),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 구축·운영



주요성과2 민관 협력을 통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선제적 구조개편 추진

- 정부와 업계가 협업하여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25.8)
- 12개 석유화학사 간 5개 프로젝트 진행 중
 - 1호 프로젝트(대산) 승인('26.2)
 - 110만톤 규모 설비 합리화
 - 2.1조원 이상 맞춤형 지원패키지
 - 2호 프로젝트(여수) 심의 중



구조개편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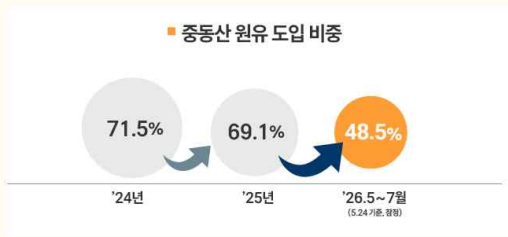
- 석유화학특별법 국회 통과('25.12) 및 시행령 제정('26.4)
- 공정거래법상 규제특례마련, 타법상 인·허가 절차 완화



주요성과 3 중동발 에너지·자원 위기 총력 대응으로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

수급 안정

- 호르무즈 봉쇄 이후
5월 원유·나프타 예년 비 90% 수준 확보
- 원유 도입선 다변화



- 석화사 가동률 55% → 75% 수준 회복
- 민생·경제 밀접 필수품목 공급망 안정세

민생 안정

- 최고가가격제 적기 시행으로 물가 안정 기여
 - 물가 3월 0.6%p, 4월 1.2%p 수준 완화 추정
- 범부처 합동 석유유통 관리·감독 강화
 - 위법행위 단속(5.25일 기준)
8,507건 점검, 137건 적발
- '착한 주유소' 368개 선정(시민단체)
 - 오피넷·Tmap 등에서 검색 가능



주요성과 4 수출·외국인 투자 동반 역대 최대

최대 수출실적 경신

- 25년 사상 최초 7,000억을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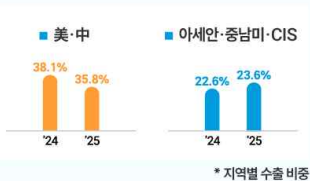


- 26년 수출 5강 가시화



수출 저변 확대

- 신흥시장 수출 비중 확대



- K-소비재 수출 약진



- 수출기업 성장 기반 확대

- 대·중소 상생 무역금융 2.4조원 조성
- 수출기업 우대금융 15조원 공급
- K-수출스타 500

외국인투자 유치 역대 최대

- 25년 역대 최대 360.5억을 달성

- 25년 상반기 부진을 넘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주요성과 5 제조AI 대전환(M.AX)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M.AX 얼라이언스

11개 분과, 1,500여개 기업·기관 참여

공정 AX			제품 AX						산단 AX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동·물류	AI 미래차	AI 로봇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산단 AX

앵커 제조기업	AI 전문기업	지역 거점 대학	연구 기관

12대 업종의 공정AX

☑ 주요 제조공정에 AI 도입

주요내용	예상 성과
반도체 PCB 공정에 AI 도입	품질검사시간 90% ↓
이차전지 전극소재 품질예측	예측정확 87%
조선 선박 조립·용접에 AI로봇 도입	작업시간 12.5% ↓
기계 농기계 AI 무인검사 시스템	검사속도 11% ↑

■ AI팩토리(누적, 개)

'24년	25
'25년	102
'26년	200+

■ 기대 효과

30% 생산성 ↑ 50% 제품결합 ↑ 20% 제조비용 ↓

제품AX로 혁신제품 개발

☑ 수요연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26~'30)

수요기업: 가전, 로봇, 자동차, 방산

필요요소: 웨어러블, 파운드리

☑ 제조현장 휴머노이드 투입

■ 제조현장

'25년	10개
'26년	20개

■ 물류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두뇌(AI) Tomorrow Robotics	로봇(HW) RAINBOW ROBOTICS
로봇부품(엔드/모터 등) AIDIN ROBOTICS	로봇부품(배터리) SAMSUNG SHANGSIN

지방 산단 중심 AX 확산

경기반월서해 KATECH 푸리/부품소재	강원무형 DICT, 바이오
충남전안 KRICT 디스플레이	울산이포 KRICT 석유화학
전북군산 KAIST 중소형 조선	경남창원 KRICT 기계류
광주영단 자율차	부산영지녹산 부동산
전남대동 조선	전남여수 KIMM 석유화학

데모다크팩토리 구축

산단 AIDC 구축